

# 광주시, 교통체계 대전환 '대·자·보 도시' 시동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전담조직 구성 후 첫 회의 가져  
비전·목표 공유...추진전략 논의  
9일 시민 속의·공동이행 협약식  
이달 대자보 출퇴근 챌린지 진행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 광주' 조성을 위한 프로젝트가 첫발을 내디뎠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대·자·보 도시 광주'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고, 지난 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고광안 행정부시장의 주재로 관련 실·국장, 자치구와 관계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대·자·보 도시

광주'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주요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정석 정책자문관(서울시립대 교수)은 이날 마련된 특강에서 시민 중심의 지속할 수 있는 교통체계 구축과 보행자 중심의 도시로 나아가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어 광주전략추진단은 대·자·보 도시 기본구상과 시민공감 사업을 소개하며, 대·자·보 도시 정책의 방향 설정과 시민 참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설명했다.

특히 대·자·보 교통체계 전환은 시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만큼 △실증공간 조성 △대·자·보 도시 공론화 △시민 스스로 기획·실천 △사람 중심의 교통 흐름 등 실증·소통·참여에 연결을 더한 '시민공감 정책 실행 계획 3+1'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에 이를 위해 오는 9일 시청 1층 시민홀에서 시민이 만드는 '대·자·보 도시 광주'를 위한 시민 속의 및 공동이행 협약식을 연다. 협약식에서는 시민실천단 100여명이 속의 과정을 통해 대·자·보 도시를 위한 '시민 제안서'와 '광주시민의 다짐'을 작성하고 공동 이행을 선언할 예정이다.

광주시에 또 11월 대중교통·자전거·보행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 '대·자·보 출퇴근 챌린지'를 진행한다. 광주시 주요 인사와 공직자들이 챌린지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대·자·보 출퇴근 챌린지'는 강기정 광주시장부터 시작해 주요 인사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인증사진을 게시

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통합공항교통국은 교통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도시철도 2호선 푸른길' 사업을 통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로 대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철도 2호선 푸른길' 사업 1단계로 2025년 6월까지 한국은행사거리-상무역사거리 구간의 차선을 조정해 자전거 전용 차로를 만들고 향후 금호지구입구사거리~풍금사거리, 주월교차로~중흥삼거리 등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광주연구원은 '대·자·보 도시 광주'의 기본구상 연구 계획을 발표하며,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서구청은 '풍암동 소통 테마길'을 성공적인 차 없는 거리 사례로 소개, 향후 차 없는 거리

확장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자·보 도시'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각 기관은 교통체계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공유하며, 대·자·보 도시 실행을 위한 체계적인 협조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광안 행정부시장은 "대·자·보 도시 광주" 프로젝트가 교통체계 개선을 넘어 시민 참여와 지속할 수 있는 도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들과 함께 대·자·보 도시로의 전환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 전남도, 호우 특별재난지역 지적 측량수수료 감면

4개군 12개 읍면...선포일부터 2년  
전과·유실 주택 지적 측량시 100%

전남도는 지난 9월19일부터 21일까지 호우피해 발생으로 특별재난으로 선포된 4개 군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피해복구를 위한 전과·유실 주택 지적 측량 시 측량 수수료의 100%, 그 외 토지는 5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당시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해남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강진 군동면·작전면·병영면, 영암 금정면·시종면·미암면, 장흥 장흥읍·용산면 등 4개 군 12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번 감면은 전남도가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요청함에 따라 반영된 것으로,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일로부터 2년이다. 적용 대상은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 건축물이 전과·유실된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그 외에 피해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면 50%를 감면받는다.

호우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면 되며,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 수수료를 납부했다더라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소급해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해당 시군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를 이용하면 된다.

오지현 기자



빅스포 개막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요 콕스 국제전기기술위원회(ICE) 회장 등이 6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빅스포(BIXPO·빛가람 국제 전력기술 엑스포) 2024'에서 에너지 신기술 전시품 등을 살펴보고 있다. 빅스포는 '에너지 미래로 향하는 여정'이라는 주제로 오는 8일까지 열린다. 나건호 기자

## 광주시, 지역 중소기업 육성 '우수 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영예  
'성장사다리 모델 구현' 우수사례

광주시가 지역 중소기업 육성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모델을 구현하며 명품 중소기업으로 키우는 '광주형 성장단계별 기업육성정책'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광주시는 6일 강원도 춘천송암스포츠타운에서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와 연계해 열린 중소기업육성정책 '2024년 제2회 지역혁신대전'에서 지역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한 공로로 중소기업육성정책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광주시의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모델 구현'을 우수사례로 채택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광주시 프리명품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한아는 광주시 지원사업을 통해 매출 실적과 신규 고용을 확대해 2년 만에 '광주형 명품강소기업'으로 도약했다. 광주시는 특히 '광주형 성장단계별 기업육성정책'을 통해 명품기업을 정부정책과 연계한 글로벌 선도기업

으로 육성하고 있다.

광주시는 전반적인 사업 집행률과 자체 기업지원 사업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 등 지자체 중심의 사업 추진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시는 2014년부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 유망중소기업을 지역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성장단계별(프리(Pre)명품-명품-지역스타-혁신선도-초광역선도-글로벌강소-월드클래스+)로 지원하고 있다. 지역스타기업 제도가 일몰됨에 따라 이를 대신하기 위해 올해부터 명품강소기업 졸업 기업에 대해 지역 성장사다리 점프업(Jump Up)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창업성공률이 높은 도시를 위해 5000억원을 목표로 투자펀드를 조성해 창업 성장단계별(예비-초기-도약-유니콘) 맞춤형 지원, 창업기업제품 실증 지원 등을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을 돕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병하 기자

## 전남도, 농기계 임대사업 국비 2년 연속 '최다'

노후농기계 대체 등 69억 확보  
기계화 통한 생산비 절감 기대

전남도가 인력 부족 해소와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 부담 해소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농기계 임대사업 등에 국비 69억원을 확보하는 등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농기계 임대 주요 사업은 농업인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소 설치, 임대 노

후 농기계 대체 구입, 파종부터 수확까지 일관기계화에 필요한 농기계 시군에 지원 등이다.

전국 농기계 임대사업비는 국비 275억원을 포함한 554억원으로, 이 중 전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비 69억원과 함께 지방비 포함 138억원을 확보했다.

세부 사업별로 △농기계임대 사업소(분소) 설치는 여수시, 영암군 등 2곳으로 전체 사업비는 18억원(국비 9억원)이다. 마늘, 양파 등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비는 96억원(국비 48억원)이며 대상은 나주, 고흥, 강진, 해남, 함평, 신안 등 11곳이다.

임대사업소에 비치된 △노후농기계 대체 사업비는 전체 20억원(국비 10억원)이며 개소당 2억원이다. 대상은 담양, 곡성, 보성, 화순, 무안 등 10곳이다. △도로 주행 중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등화장치 부착 지원에는 총 3250대에 3억2000만원(국비 1억3000만원)을 지원한다.

오지현 기자

## 전남농기원, '갈색거저리' 대량사육 기술개발

스마트자동화 사육시스템 구축  
노동력 절감·생산성 향상 기대

전남도농업기술원은 국내에서 소비 수요가 가장 많은 식용곤충인 갈색거저리의 자동화 사육시설을 구축하고, 대량사육 기술개발에 나섰다 6일 밝혔다.

현재 국내 곤충산업은 대부분 소규모 영세농으로 운영되고 있어 노동집약적인 생산방식과 높은 인건비가 문제로 지적되

고 있으며, 각 농가에서 생산된 곤충의 품질이 일정하지 않아 산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전남도농업기술원은 곤충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노동력 절감과 생산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곤충 스마트 대량 사육시설 리모델링 사업' 추진해 갈색거저리 자동화 사육시설을 구축했다.

이번 사육시설은 사육상자 적재형 반자

동 사육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번에 최대 1200개의 사육상자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8톤의 갈색거저리 생산이 가능한 규모로 설계됐다.

특히 반자동 먹이·수분 공급장치와 자동 온·습도 제어시스템, 유충 선별기, 색채 선별기, 자동세척기 등 첨단 장비 설치를 통해 사육 과정에서의 작업 효율성도 극대화했다.

또한 야채 대신 젤 형태의 수분 공급방식과 펠렛형 사료 개발 연구를 통해 사육 과정에서의 노동력 절감에도 나섰다.

오지현 기자

진일보 @jnibo 전남일보인스타그램 #호남대표미디어 #진일보 #전남일보\_뉴스서비스